



## 파주로 간 아이들... “출판만큼 재밌는 게 또 없구나!”

‘책나라 여행’, ‘나도 예술가...’ 등 책세상 체험 행사 연달아  
“책, 지루해요!” 소리에 출판사 대표들 ‘책나라 여행’ 아이디어 내놓아

동화작가로 활동중인 이옥수 씨는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책읽기를 한다. 하루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 봤다. “왜 친구들이 책을 잘 안 읽을까?” 아이들은 책보다 재밌는 게 많다고 대답했다. 컴퓨터 게임부터 시작해 영화, 비디오, PC방, 만화방 등 지루한 독서보다 몇 배 재밌는 것들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책과의 거리감을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선 지 겨울방학이 한창인 지난 1월, 출판계는 파주출판단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놓고 어린이 독자들을 초대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인들이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책을 친구처럼 느끼도록 한다는 데서 공통점이 엿보이는 행사들이었다.

작가도 만나고 인쇄소도 구경 가고, 책 이렇게 만드는 지 몰랐지?

“어쩐 인쇄소라는 ‘공장’ 을 가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엄마가 방학 때 잠자고 게임만 한다고 보냈거든요. 처음엔 오기 싫어 떼를 썼는데 와보니까 ‘무지’ 좋아요.”

학원 끝나고 또 학원으로 가기 바빴던 아이들이 파주에 모였다. 지난 1월 18일, 파주출판단지 내 서해문집 3층에 모인 50여 명의 아이들은 《토끼전》(창비)을 놓고 스토리에 걸맞는 자신만의 판화 작품을 완성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점심시간 이후 진행된 《인사동 가는 길》(파란자전거) 저자와의 만남 시간에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자 김수자 씨가 “내가 이 책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자 “정말 작가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며 눈이 동그레진다. 아이들은 어느 새 저자가 마련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인사동과 관련된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사연에 귀를 기울였다.

이 모습은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파주출판단지에서 개최된 ‘파주 겨울방학 책나라 여행’의 한 장면. 이번 행사는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출판사인 창비, 사계절, 푸른숲, 서해



지난 1월 중순,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에서 실시한 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출판사 약 10곳이 연합해 준비한 파주 겨울방학 책나라 여행 ①, 보림출판사의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②, ③)

문집 등이 연합해 주최했다. 행사 아이템 생산자이자 행사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서해문집 김홍식 대표는 “독서에는 수용자와 전달자가 있는데 우리의 독서문화는 늘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행사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재밌는 매체인지를 새롭게 느껴보게 한다는 뜻”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간 체본 체험, 아트북 체험 등 책과 관련된 개별 체험학습 코너는 간간이 있어 왔지만, 저자의 머릿속에서 원고가 구상되는 과정부터 책이 인쇄소, 배본소를 거치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홍식 대표를 비롯, 장비와 서해문집 편집자 등은 행사 기간 내내 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시종 팔을 걷어 부치고 아이들의 친구 역할을 해줬던 김홍식 대표는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서 책이 타자적 산물이 아니라 나도 한번쯤 참여해서 만들어보았던 친근한 매체라는 생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며 “책을 만드는 데 땀흘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책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운영본부 측은 이번 행사를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본부 일을 맡은 박형섭 씨(클레이 점토 만들기 업체 점핑클레이 대표)는 “처음 시도 되는 행사라 신청자수가 적을까,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학부모나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고 프로그램도 원만히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적극 참여 의사를 드러냈으며, 향후엔 지자체와 연합해 캠프 형식의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구상해볼 계획이다.

**책만 내고 '끝' 아닙니다, 예술 프로그램도 보고 출판사도 구경오세요!**  
 한편 지난 1월 10일과 11일, 17일과 18일 보림출판사 내부에서는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약 2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잡재된 창조성과 감수성을 제대로 표현해볼 시간을 만들어주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보림에서 예술 관련 교양서를 출간한 바 있는 저자들과 작품으로만 얼굴을 내민 예술가들이 강사로 적극 나서서 책과 작품을 놓고 체험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시간이었다.

**“땀! 들었습니다. 이건 아육이라는 책소예요. 오늘은 아육을 갖고 작품 하나를 만들어볼 겁니다.”**

1월 18일 보림출판사 내에 모인 20여 명의 아이들은 “배추 맞죠?” “아니야! 시금치 같은데...”라며 《예술가와 함께 하는 자연미술 여행》을 쓴 김해심(자연미술가) 씨가 낸 퀴즈의 정답을 맞춰보려고 너도나도 손을 들었다. 곧 김씨가 아육을 광목천 위에 찢거나 문질러서 재미있는 형상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하자 아이들은 어느새 광목을 집어들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설치미술가 백승혜 씨의 그림자로 만들어보는 나의 또 다른 형상들, 화가 황은화 씨의 감정을 컬러로 표현하기 등은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보림출판사 대표 권종택 씨였다. 홍보팀의 정연희 씨는 “사장님을 비롯해 출판사 자체적으로 어린이 독자들에게 창조적인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다”며 “책만 내면 끝이 아니라 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동 역시 어린이출판사가 지향해야 할 몫”임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 강좌 시간에 강의를 들은 한 학부모는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고들 ‘노래’를 부르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며 “파주출판단지에서 이런 행사들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들은 ‘파주어린이책잔치’ 외에 파주출판단지를 배경으로 한 이렇다할 독자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에서 일반인들과 출판사 그리고 책의 거리감을 한층 좁혀준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방학을 맞아 헤이리를 구경하고 파주 출판단지를 찾았다가 우연히 행사를 접했다는 최 모 군(15세 고양시 H중 3년)은 “낮잠 잘 시간은 있어도 책 볼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책을 안 읽곤 했는데, 책 만드는 곳에 직접 와보니 한 권 한 권이 다르게 보인다”고 느낌을 전했다. 최 군은 특히 출판사 갤러리나 내부 공간을 자주 개방해 출판사나 책이 극장이나 PC방, 핸드폰처럼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박한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책나라 여행 운영본부의 박형섭 씨는 “나도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책이 무조건 싫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라며 “사실 ‘재미있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게 문제이며, 출판사측에서 책읽기 후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만한 아이 템 개발을 한층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라고 말했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